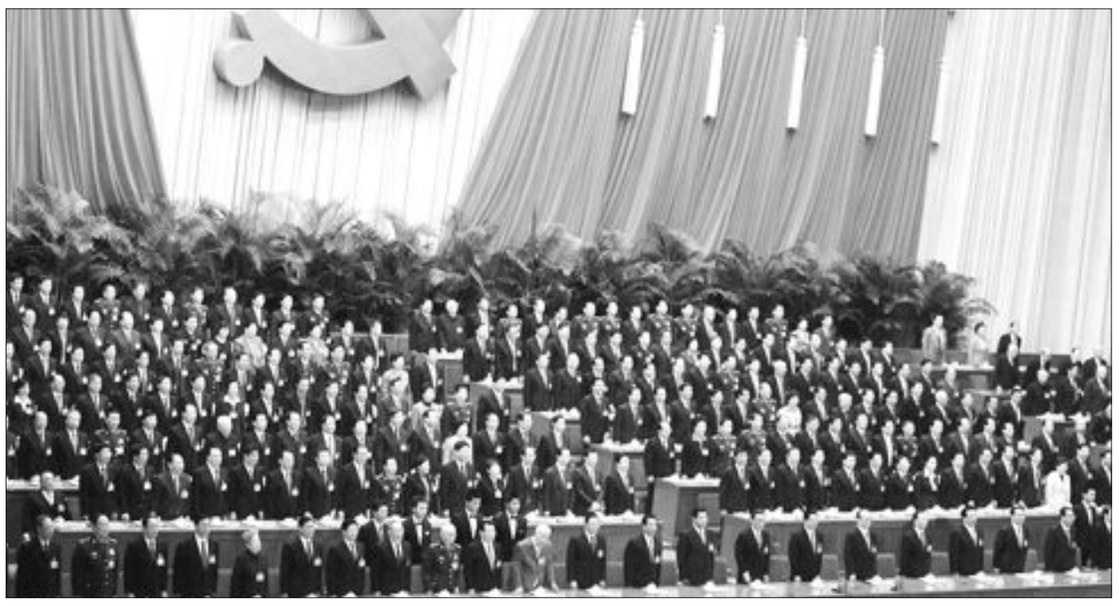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가 개막된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당 지도부 및 2천여명의 전대 대표들이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기립해있다. /AP=연합뉴스

"개혁·개방 지속 샤오캉 사회로"

〈小康=비교적 잘 사는〉

후진타오 中 17차 全大 개막연설

대만과 평화통일 체결 협정 제의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주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가 15일 개막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개막사를 통해 중화민족의 부흥을 선언하는 한편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5년 임기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후 주석은 이어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하는 동시에 국방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하나란 원칙 하에 양안의 적대적 상태를 정식으로 끝내는 문제를 협상해 평화적 합의를 보고 양안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틀을 마련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을 정중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선택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며 개혁개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를 바로잡고 샤오캉 (小康·모든 국민이 중산층 수준을 유지하는 것)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통치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이 심도 깊게 관철돼야 함을 강조했다. 과학적 발전관은 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균등한 분배에도 힘써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 리펑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 전 총리 등 원로들도 특별대표로 초청됐다.

당은 앞서 14일 인민대회당에서 17전대 예비회의와 주석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쩡칭홍 국가부주석을 17전대를 주관하는 비서장(의장격)에 임명했다.

부비서장(부의장)에는 류윈산 당 중앙선전부장, 저우융캉 공안부장, 허궈창 당 중앙조직부장, 왕강 중앙서기처 서기 등 4명이 선임됐다. /베이징=연합뉴스

후진타오 권력 강화 실패한 듯

후계자 선정·최고 지도부 구성 양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에서 중국의 유일 권력자의 지위에 오르는데 실패한 것으로 관측된다.

후 주석은 17전대에서 자신의 이론인 과학발전관의 당장(黨章) 삽입을 통해 정치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데는 성공했지만 권력 역학구도 측면에선 당·정·군의 실권을 한손에 쥐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평가하고 있다.

17전대를 앞두고 후 주석은 쩡칭홍 국가부주석과 막후교섭, 장쩌민 전 주석과 힘겨루기, 원로 및 지도부들과의 토론을 거쳐 상당부분 자신의 입지를 줄여간 흔적이 엿보인다.

이는 당초 차세대 단일 후계자로 거론됐던 리커창 랴오닝 서기를 제치고 지난달 중순부터 시진핑 상하이 서기가 급부상하면서 후계구도가 사상 초유의 경쟁체제로 전개되는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후 주석은 앞으로 자신의 직계인 공청단 출신의 단파 인맥을 점진적으로 베이징 요직에 끌어올리면서 쩡칭홍, 장쩌민, 그리고 태자당, 상하이방과의 권력균형의 추를 오가는 위태한 게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연합뉴스

연결 시설 대부분 철제 출렁교 '위험 상존'

■금강산 관광 안전 문제없나

15일 금강산에서 철제교 와이어가 풀리는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자 금강산 관광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본격적인 가을 관광철을 맞아 금강산에는 2천500여명이 몰렸으며 이 가운데 1천300여명이 이날 사고가 발생한 구룡연에 운집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금강산 관광코스의 연결 시설은 주로 철제 빔으로 된 간이 다리가 설치돼, 계곡과 계곡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은 출렁거리는 다리를 잡고 건너야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비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철제 출렁교가 발을 딛기에 미끄러운데다 너무 흔들려 관광객들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은 철제 출렁교의 하중을 감안해 한번에 5명씩만 건너라고 관광객들에게 권고했지만 이날 관광객들이 20여명이나 한꺼번에 출렁다리에 올라오는 바람에 철제 와이어 버클이 풀리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현대아산측은 연초에 금강산 철제 출렁교 등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8월, 9월 그리고 10월에도 안전을 체크했다면서 인재(人災)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룡연을 둘러보는 시간이 한정된데다 단체 관광객들은 사실상 줄을 서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실시된 내금강 관광의 경우도 올 여름 수해로 계곡 도로 일부와 교량 등의 붕괴해 한달여 정도 관광이 중단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문제점이 드러났었다.

금강산 관광도로 또한 너무 좁아 소형 단체 관광버스가 곡예 운전을 하고 있어 항상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금강산 현지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만물상 코스 운행에 나섰던 버스가 넘어져 관광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 관리를 북측이 담당하고 있고 현대아산은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감시 삼엄…낯선 사람과는 말도 안해"

■NYT가 전하는 미얀마

미얀마 민주화 시위가 군정당국의 무력진압으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국민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각) 위험을 무릅쓰고 이번 민주화시위에 대해 이야기한 평범한 미얀마 국민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이들이 전한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경험에 대한 것이었지만 분노와 좌절, 공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말했다.

◇**군정의 무자비한 시위진압을 목격한 한 주부**=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하지도 않았음에도 아무 이유없이 구타를 당했다.

시위와는 상관없이 혼자 서있던 한 소년은 군인에게 두들겨 맞은 뒤 붙잡은 시위대를 태운 트럭으로 옮겨졌다. 이 소년이 적재함에 오르다 떨어지자 경찰이 커다란 막대로 소년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불신을 키우는 군정에 대해 이야기한 한 청년**=더 이상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는 없다. 모든 것이 깨졌다. 보안당국은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것이다. 감시의 눈초리 때문에 다방에서조차 우리는 이번 일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말을 걸지 않는다. 시장에서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것이 비밀이다. 술집도 텅 비어 있다.

◇**군부에 대한 승려들의 공포를 목격한 한 교사**=우리는 군사정부를 묵인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것들이 모욕을 당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 인과응보가 따르기를 기대할 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젊은 승려들은 수행을 계속할 도덕적 용기를 상실한 채 환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승들의 설득으로도 젊은 승려들의 환속을 막지 못한다는 것만큼 최악의 일은 없다.

◇**시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가**=나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 또 다시 평화적인 시위가 있다면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반대한다. /뉴욕=연합뉴스

"복잡한 관세 체계 등 EU 취약점 공격하라"

임정빈 교수 'FTA 4차협상' 조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농산물 개방 폭을 최대한 줄이려면 막대한 보조금과 복잡한 관세 체계, 가격지지제도 등을 동원한 EU의 농업보호정책을 보다 강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업전문연구기관 GSnJ가 15일 발표한 '한·EU FTA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책' 보고서에서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우선 EU의 농업보조금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EU는 세계 최대 농업보조금 사용국이다.

EU는 지난 2005년 기준 전체 공동예산의 절반이 넘는(50.5%) 484억6천200만유로를 공동농업정책에 사용했다. 품목별로는 곡물 등 농산물에 70%, 쇠고기·낙농품 등 축산물에 30% 정도가 배정됐다.

임 교수는 "돼지고기·쇠고기·치즈·버터·분유·쌀·밀·잡곡 등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집중 공격하면 우리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예외 취급이나 장기철폐 주장의 논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U가 역내 민감농산물의 보호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복잡한 관세체계와 '진입가격제'도 공격 대상으로 꼽혔다.

임 교수는 또 EU와의 농업 협상에서 이같은 EU측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주요 민감 농산물의 품목 재분류, 세번분리 등의 관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남북, 17~21일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포함 안 돼

제1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 일대에서 진행되지만, 이번엔 그동안 '특수이산가족' 형태로 소수 포함됐던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이 빠진다.

이번 상봉에서는 17일부터 19일까지 1차로 북측 가족 97명이 재남(在南) 가족 400여명을 만난 뒤 20일부터 22일까지 남측 가족 94명이 재북(在北) 가족 250여명을 만난다.

이번 상봉행사에 특수이산가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특수이산가족 20명에 대해 북측에 생사확인을 의뢰했으나, 북측이 19명은 확인 불가능, 1명은 사망으로 통보해왔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고용보험 환급과정 수강생 모집
"수강료 80~100% 환급"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영세자영업자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3개월	11월 1일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0월 15일
	CAD	2개월	10월 22일
	MOS(Master)	2개월	10월 15일
	정보통신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화 기초 1,2	5주	매월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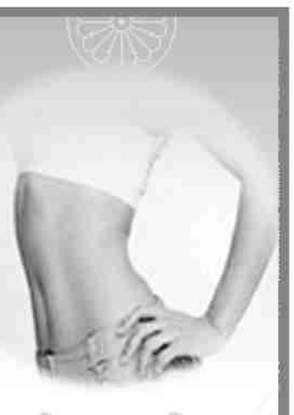
부동산실무

구 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2개월	11월 12일
	주택관리사	2개월	11월 12일

※ 교육대상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08년 국가·지방직 합격 대비는 지금 부터가 좋습니다 =
7·9급 공무원 합격특강
강좌직종
행정직 | 교행직 | 세무직 | 관세직 | 감사직 | 법원직 | 검찰직 | 교정직 | 보호직 | 소방직 | 전산직 | 복지직 | 토목직 | 건축직 | 물리학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반 모집 (전직종처음시작반) (현재여석접수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www.mdgosi.co.kr ☎222-4560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 의 (062)531-3636, 531-0700 / 523-4600, 011-9612-5530



11월 1일 대개강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 영어, 수학,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반대, 사범대 편입반 | 약대, 한의대 편입반
MEET/ DEET 기본이론과정 |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뒤) ☎227-9088